

세지마 가즈요의 주거건축에 나타나는 경계공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ial Boundary in Sejima Kazuyo's Housing Architecture

김형준*

Kim, Hyoung-J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pacial boundary in Kazuyo Sejima's housing architecture, to give attention to contemporary housing architecture that we inhabit, and to escape from existing architectural concepts. This study seeks to the meaning and possibility of the spacial boundary on the basi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spacial boundary can be studied in the aspect of architectural space that molds human experience and percep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ree properties in the spacial boundary are revealed. One property of the spacial boundary is soft that protect privacy from gaze of exterior. Another property is that communication that changes according to material of boundary and its experience of observer. The other property is to have uncertainty by compound of programs and material-mixing senses including its perception. This results means that the spacial boundary as interface which is represent our everyday life in the contemporary housing architecture.

Keywords : Sejima Kazuyo, Housing, Spacial Boundary, Gaze, Communication, Uncertainty

주요어 : 세지마 가즈요, 주거, 경계공간, 시선, 소통, 불확정성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경계공간’은 현대건축과 그 이론에서 주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경계공간’의 개념은 기존의 사회적, 문화적, 건축적 규범에서 벗어나려는 현대건축가들의 작업 속에서 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파사드나 입면은 근대부터 지금까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규범이었다. 현대건축가들은 이러한 규범을 재설정하거나 해체하기 위해 파사드와 입면에 ‘경계공간’을 생성시켰다. 이들은 경계공간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관계, 사성(私性, privacy)과 공성(公性, publicity)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고 시도한다¹⁾.

이러한 현대건축가들의 작업은 새로운 시도라는 차원을 넘어 변화, 일시성, 다원론, 불확정성 등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곧 현대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물리적으로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던 근대사회의 사고방식을 벗어나 현대사회를 수용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현대건축가들의 작업과 이들의 ‘경계공간’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대인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주거건축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건축에 나타나는 경계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주

거건축이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내포하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현대성의 일차적인 축적과 경험도 주거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근대의 주거 형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현대건축가들의 노력은 주거건축에 적용한 경계공간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곧 주거건축에 있어서 경계공간을 분석하는 것은 근대와는 다른 현대주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현대성의 축적과 생성으로서 주거건축이 가진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대상 및 범위

‘경계공간’을 주제로 작업하는 현대건축가들 중에서 주거건축에 관하여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일본의 여성 건축가인 세지마 가즈요이다.

세지마 가즈요는 이토 토요의 사무실에서 6년간 실무를 익혔으며, 1995년 독립하여 니시자와 류와 함께 ‘SANAA’라는 설계사무소를 시작했다. 독립 후 세지마가 발표한 일련의 건축물들은 일본 뿐 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작품들은 ‘경계만들기(making the boundary)’, ‘새로운 경계’ 등 ‘경계’를 주제로 한 것이었으며,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생산하는 경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특히, 1998년 준공된 기타가타 아파트는 기존의 주거가 가진 사성

*정회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공학박사

1) 김광현 외, ‘현대주거에 나타나는 사성과 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0. 11

(私性)과 공성(公性)의 관계를 치환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성(私性)과 공성(公性)의 관계를 생성하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주거형식을 만들어냈다. 이 작품으로서 세지마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그녀가 작업했던 일련의 주거건축들도 현대주거건축의 예시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세지마 가즈요의 주거건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주거건축에 나타난 경계공간과 현대 주거건축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지마 가즈요의 주거건축은 발표된 작품들 중 준공된 작품으로 한정하였으며, 세지마 가즈요와 니시자와 류가 공동 작업한 주거건축은 부가적인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²⁾.

II. 현대건축과 경계공간

1. ‘경계공간’의 의미

경계란 어떤 것이 끝나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이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나의 경계를 놓고 객체와 주체, 내부와 외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등이 구분된다. 근대건축에서 ‘경계’의 의미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파사드나 입면은 이러한 경계를 만드는 물리적인 실체였다. 예를 들어, 아돌프 로스의 짜라주택, 몰러주택, 뮐러주택에서 보이는 파사드와 입면은 외부를 차단하는 경계로 작용했다. 이 경계는 또한 복잡한 근대사회로부터 사적인 내부를 보호하는 물리적인 장치이기도 했다. 이러한 파사드를 통해 아돌프 로스는 내부와 외부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보호되어야 할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구분도 명확히 구분했다.

이러한 근대의 이분법적이고 확정적인 경계로부터 현대건축가들은 벗어나고자 한다. 현대건축가들이 경계공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경계가 가진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경계로부터 변형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주체와 객체 그리고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교환과 소통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곧 경계를 통해 주체와 객체,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소통시킴으로써,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내포시키거나 드러내고자 한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경계공간의 특성은 19세기 초에 등장한 ‘파시쥬’에서 찾아 볼 수 있다<그림 1>. 파시쥬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아케이드로서 상품과 관람자, 내부와 외부 사이의 전도를 발생시켰다. 발터 벤야민의 지적처럼³⁾ 파시쥬에서는 내부와 외부의 전도가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었다. 내부와 외부의 결정을 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공간의 상태는 내부와 외



그림 1. 파리 파시쥬(19세기초)와 파리국제박람회 예술관(1889)

부를 보는 관찰자의 시선을 끊임없이 교차시켰으며, 이로 인해 내부는 외부가 되었고 외부는 내부가 되었다. 내부와 외부의 공간이 서로 교차하는 과정을 하나의 소통의 과정으로 본다면, 파시쥬는 경계공간으로서 변형과 교환 그리고 내부와 외부가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었다⁴⁾.

이러한 점에서 두 개의 영역이 서로 교환되거나 소통이 일어나는 경계공간은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는 지점이 아니다. 오히려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서로의 규칙을 공유하지 않는 이질적인 객체들이 만나는 영역이 된다. 각각의 객체들은 상대의 객체에 대해 주체가 아닌 타자이며, 타자로서 모든 객체들은 경계공간을 통해 소통한다. 곧 경계공간에서는 타자 사이의 교환과 소통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계를 형성하고 대립하고 있는 A와 B의 관계에 C가 개입될 경우, A와 B는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C 사이에도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된다. 기존의 A와 B의 관계에서 볼 때 C는 타자가 되며, 타자로서 C는 고정된 A와 B의 관계를 바꾸어 놓는다. 이러한 작용은 또 다른 개체 개입될 때마다 일어나며,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다중적 관계는 기존의 개체들이 형성했던 경계들을 없애고 새로운 경계들로 이루어진 경계공간을 생성한다<그림 2>.

현대건축에서 경계공간은 고정된 관계나 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작업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기존의 상황이

3) “파시쥬란 양쪽 건물의 외벽과 유리지붕으로 덮인 내부화된 공간이지만, 상점 쪽에서 보면 이 통로는 외부이고, 파시쥬 쪽에서 보면 건물의 외벽은 안쪽 벽이 된다. 곧 ‘건물과 가로의 중간적 존재’인 파시쥬는 건물을 보면 내부이고, 창을 보면 외부인 공간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파시쥬는 이른바 근대 이후의 내부와 외부의 이중적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발터 벤야민은) ‘파시쥬는 바깥쪽이 없는 집이나 복도이다’ 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건물과 가로의 중간적 존재’이며, 실내이기도 하고 가로이기도한 애매한 존재였으며, 순수하게 투명한 창은 곧 등가인 공간이 연쇄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였다.” 김광현, ‘건축과 시선’, 이상건축, 2000. 7, p.131

4) 김형준, 19세기 근대건축시설의 구축, 서울대 박사논문, 2004, pp.215-217

5) 그림 2는 현대건축가그룹 CHORA가 변화하는 도시조직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Liminal Body’의 도식이다. ‘Liminal Body’란, 도시적 실체의 드러난 조건과 드러나지 않은 조건 사이의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도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대립, 협상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인간의 정주를 드러내는 개념이다. CHORA, Urban Flotsam, 010 Publisher, 2001, p.352

2) 세지마 가즈요의 주거건축: 와이.주택(1993-1994), 숲속의 별장(1992-1994), 기타가타 아파트(1994-1998), 엔.주택(1992, 준공안됨), 작은 집(1999-2000), 세지마 가즈요 + 니시자와 류의 주거건축: 에스-주택(1997), 엠-주택(1996-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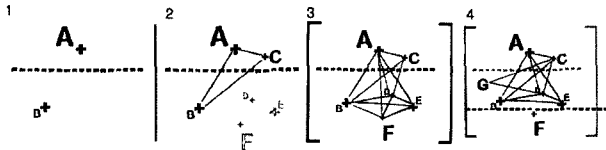


그림 2. 타자의 개입에 따른 관계의 변화와 경계공간의 생성, Liminal Body, CHO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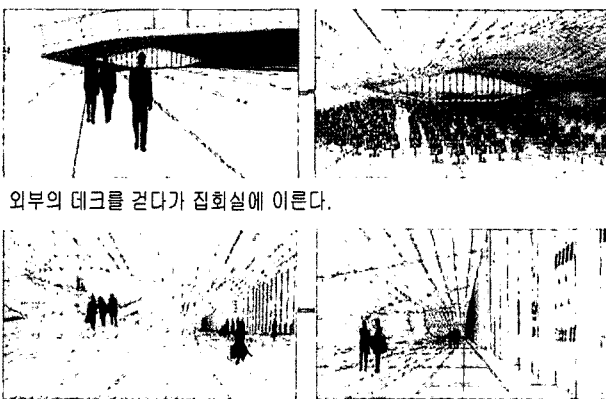
나 환경에 대하여 전혀 다른 개체, 곧 타자성을 내포한 객체를 개입시킴으로써 기존의 관계들을 낫설게 하고, 이것을 통해 그동안 지속되었던 관념들에 의문을 던지며 그 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주체와 객체, 내부와 외부 등이 가진 관습이나 고정된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생성시키는 것이 ‘경계공간’의 개념이다. 현대건축가들은 이러한 ‘경계공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건축의 고정되고 관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2.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경계공간의 특성

현대건축에서 경계공간은 사람의 시각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각적 경계보다 관찰자와 대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식에 따른 경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과거의 물리적 경계가 가진 분할 구도에서 벗어나 관찰자의 인식에 따른 각 대상간의 소통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요코하마 국제 항만 터미널 설계경기의 당선안인 FOA의 계획안의 경우, 건물의 표피를 통하여 모호한 경계를 만들고 있다. 이 계획안에서 건물의 표피는 사람들의 이동 통로이다. 이 때 표피는 건물의 외피이면서 동시에 내부의 바닥이 된다. 건물의 경사진 표피를 통해서 사람들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다. 표피를 통해 이동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외부에서 내부로 흘러들어간다. 건물의 표피는 더 이상 내부와 외부로 나누는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내부와 외부가 동시에 경험되는 경계공간이 된다(그림 3).



외부의 데크를 걸다가 집회실에 이른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도 모호하며, 바닥과 천장의 경계도 구분할 수 없다.

그림 3. 요코하마 국제 항만 터미널, FOA, 1995-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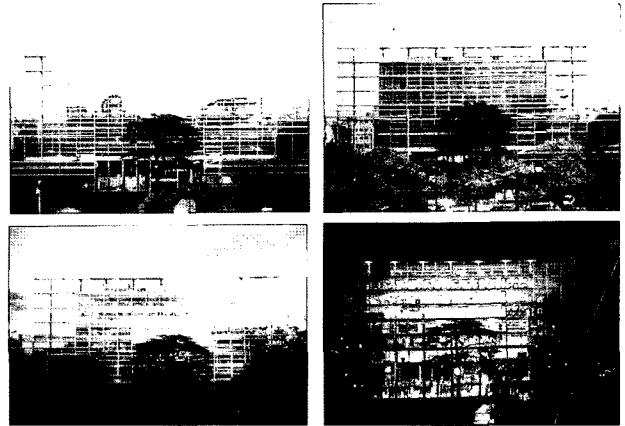


그림 4. 카르티에 빌딩, 장 누벨, 1994

장 누벨이 설계한 카르티에 빌딩의 이중외피도 외부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관찰자로 하여금 외피라는 물리적 경계를 확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든다(그림 4). 이러한 건물입면은 고정되고 한정된 경계로 인한 대상의 단일적 인식과 이분법적 관계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변화하는 경계, 확정할 수 없는 경계, 곧 불확정적인 경계로 인해 분리되어 있던 내부와 외부 사이에는 소통의 영역이 생성된다. 이와 같이 카르티에 빌딩의 이중외피는 단순한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경계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확정적이고 분할된 물리적 경계를 경계공간으로 생성하기 위해 현대건축가들은 외피의 재료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주로 입면 유리 프린팅, 반투명 유리, 커튼 등이 경계공간을 생성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프린팅 된 입면 유리의 텍스트들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시선과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시선을 건물의 외피에 가두어 놓는다(그림 5). 이것은 책을 읽을 때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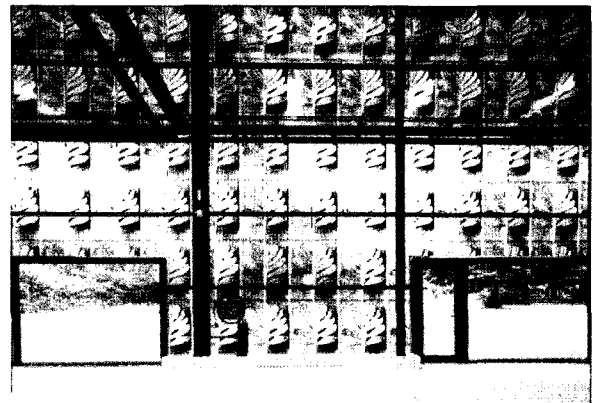


그림 5. 리콜라공장, 프린팅된 입면 유리 헤르조그 & 드 뢰름, 1986-87

6)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표피는 하나의 판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바닥과 벽, 천장의 경계도 모호해진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관찰자는 내부와 외부, 바닥과 벽, 천장도 재해석하거나 제정의 해야 한다.

이와 잉크의 물질성은 잊어버리고 글자의 의미만을 보는 것처럼, 입면 유리의 프린팅은 표피의 물질성이나 내부와 외부의 공간감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인식을 유리표면에 프린팅된 텍스트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곧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관찰자의 시선이 그대로 투과되는 것이 아니라, 입면 유리의 경계에 머무르게 되고 프린팅된 텍스트를 인식하는 작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입면 유리는 단순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탈피하여 관찰자의 새로운 감각을 발생시키는 경계공간이 된다.

세지마 가즈요와 니시자와 류가 함께 작업한 엠.주택은 전체적으로 반투명 유리들이 사용되었는데, 이 유리들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지도 투과시키지도 않는다(그림 6의 a). 반투명 유리의 이러한 특성은 프린팅된 입면 유리와 유사한 경계감각을 발생시킨다. 시선이 반투명 유리에 의해 점유 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반투명 유리 사이에는 외부 중정이 삽입되어 있다(그림 6의 b). 내부에서 반투명 유리를 통해 외부 중정을 볼 때, 외부 중정을 외부로도, 내부로도 결정하기 어렵다(그림 6의 c). 이것은 반투명 유리에 의해 관찰자의 시선이 일부분 점유 당함으로써 외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투명 유리와 외부공간에 의해 발생하는 이러한 감각들은 인식작용으로 이어지고, 이것을 통해 내부와 외부 사이에는 경계공간이 생성된다.

입면에 사용된 커튼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를 만든다. 커튼에 의한 경계는 외부를 내부로, 내부를 외부로 바꾼다(그림 7의 a, b). 커튼에 의해 만들어지

는 내부와 외부의 전환으로 인해 커튼의 경계를 내부로도, 외부로도 한정할 수 없다. 이것은 반투명 유리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다. 또한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커튼은 명확한 입면의 경계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자로 하여금 경계영역을 유보하는 감각을 불러일으킨다(그림 7의 c). 이러한 감각들은 결국 커튼을 중심으로 한 불확정적 영역을 형성함으로써, 경계가 단절이 아닌 소통의 공간으로서 인식하게 만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건축가들은 경계공간을 통해 과거의 경계가 가진 공간의 물리적 격리나 분리,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고자 한다. 경계를 하나의 면이 아닌 영역과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분리된 대상간의 소통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경계공간이란 건축의 고정되고 관습적인 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성을 생성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III. 세지마 가즈요 주거건축의 경계공간

1. 세지마 가즈요의 경계만들기와 주거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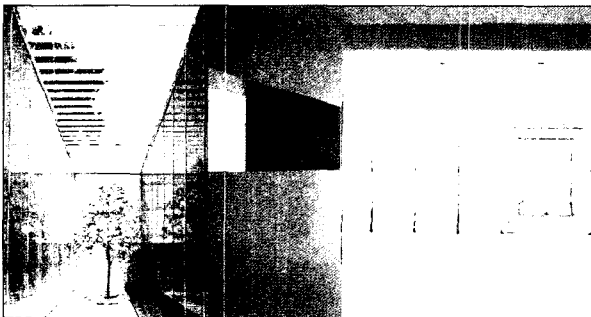
이토 토요의 사무실에서 독립한 후 자신만의 건축론을 정립하던 초기에 세지마는 새로운 경계에 대한 관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나는 행위와 그 행위가 일어나는 곳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부와 외부, 방과 공간 사이의 물리적 대상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경계들입니다. 평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곧 경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의미합니다.”⁷⁾

세지마는 평면의 선과 벽을 단순히 이것과 저것을 분리하는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는 ‘경계’로 인식했다. 세지마에게 평면이란 경계를 만드는 작업이었으며, 경계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행위가 공간과 관계를 맺는 곳이었다.

경계에 대한 세지마의 개념은 주거건축을 다루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기타타 아파트에 대해 세지마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두 가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새로운 유형의 경계였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사이에 새로운 사성(私性)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영역은 두껍고 단단한 벽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방법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각각의 주호를 분별할 수 없는 주호 구성으로 인해 사성(私性)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공용복도쪽 입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⁸⁾



(a)반투명 유리 사이의 외부중정 (b)내부에서 외부중정을 바라 봄

그림 6. 반투명 유리를 통한 경계공간의 생성, 엠.주택, 세지마, 1996-97



(a)내부화된 외부 (b)외부화된 내부 (c)유동하는 경계

그림 7. 커튼-윌 주택, 시게루 반, 1995

7) El Croquis 77[I]+99, Kazuyo Sejima+Ryue Nishizawa, 2000, p.11

8) “One is a new type of boundary, which is what Nishizawa has just been talking about; that we want to make some privacy between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같은 책,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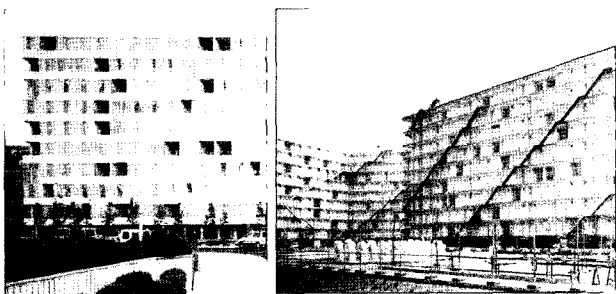
세지마는 기타가타 아파트에서 사성(私性)을 물리적인 벽을 통해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경계’라는 새로운 장치를 통해 만들려고 하였다. 과거의 주거건축에서 사성(私性)이 내부공간 깊숙이 벽을 통해 형성되었다면, 세지마는 관찰자의 시선이 닿는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사성(私性)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것이 세지마가 말하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사이에 형성된 사성(私性)’이었다. 곧 세지마는 사성(私性)을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사이에 형성된 경계공간을 통해 만들려고 하였다. 주거에 형성된 경계공간은 ‘사성(私性)을 생산하는 경계’로서 물리적 경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지마의 주거건축에 나타나는 경계공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유연한⁹⁾ 경계공간

주거에 경계공간을 개입시킴으로써 사성(私性)을 확보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내부와 외부를 이분법적으로 구성하거나 물리적 분리를 통한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 앞에서 언급한 기타가타 아파트의 경우, 사성(私性)은 아파트의 내부공간이 아니라 아파트의 입면에 형성된 경계를 통해 생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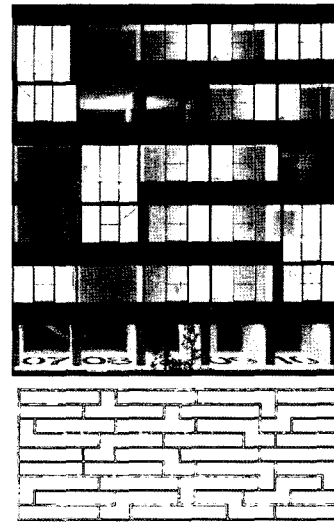
기타가타 아파트의 양쪽 입면을 따라 형성된 연속적인 복도와 그 입면은 외부에서 각각의 주호를 분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일반적인 공동주거의 입면은 각 주호의 고정된 경계를 그대로 외부로 드러내기 때문에 외부의 관찰자는 쉽게 각 주호의 크기와 위치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지마는 북측 입면에는 공용복도를, 남측 입면에는 개인 복도(private corridor)를 개입시킴으로써 외부에서 쉽게 각 주호를 파악 할 수 없게 만들었다<그림 8>.

각 주호와 외부 사이에 또 다른 공간이 개입됨으로써 고정된 경계는 지워지고 이로 인해 외부의 관찰자가 각 주호의 크기와 위치를 분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주호를 층별로 구성하는 관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주호의 구성을 단면적으로 서로 중첩시킴으로써 입면에 나타나는 각 주호의 위치와 크기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



(a) 남측 입면 (b)북측 입면

그림 8. 기타가타 아파트, 1994-1998



단면 다이어그램

그림 9. 기타가타 아파트, 남측 입면도와 단면 다이어그램

었다<그림 9>. 이러한 공간을 세지마는 ‘유연한 경계’라고 정의했다.

“양쪽 입면을 따라 연속적인 복도를 가진 이 평면은 우리가 사성(私性)을 가진 내부 공간을 감추고 싶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계는 대단히 유연하지만 내부의 사성(私性)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일반적인 배치의 경우라면, 각각의 주호가 고정된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집과 저집을 쉽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가타 아파트의 경우 ‘유연한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누구의 주호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¹⁰⁾

세지마의 유연한 경계는 외부로 드러나는 내부의 사성(私性)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동주거에서 보호되지 않았던 사성(私性)이 유연한 경계라는 경계공간을 통해 외부로 투사되지 않음으로써 보호된 것이다. 세지마는 이러한 경계공간을 주거 내부에도 적용하여 내부의 시선으로부터 내부의 사성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엠-주택(M-House)에서 반투명 유리로 둘러싸인 중정은 거실에서 스튜디오, 침실로 향하는 내부의 시선을 점유함으로써 중정 너머의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고 있다<그림 6, 10>.

이러한 사성(私性)의 보호는 건축주가 요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필요했다. 건축주는 자신의 직업 특성상 많은 내방객을 수용할 수 있고, 이들과 같이 파티를 열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요구했다. 거실이 내방객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경우 필요한 것은 내방객의 시선으로부터 개인 작업공간이나 침실 등의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세지마는 시선을 점유하는 반투명 유리와 중정을 주거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사이에 개입시켰다. 이로 인해 내방객의 시선은 반투

9) El Croquis 77[I]+99, Kazuyo Sejima+Ryue Nishizawa, 2000, p.14, 배우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나는 경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4, pp.78-80

10) 같은 책,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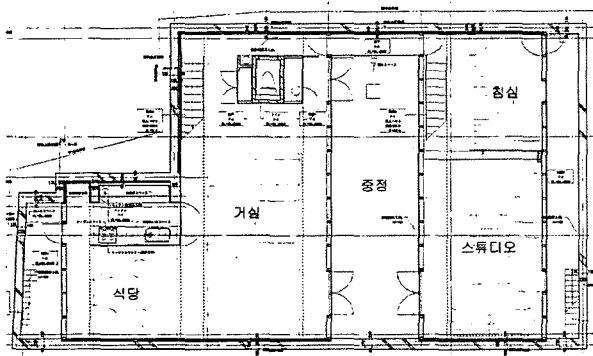


그림 10. 엠주택 평면도, 1996-1997

명 유리를 통해 일차적으로 점유되며, 외부에 면한 중정은 내부 중정처럼 인식되어 그 너머에 보호되어야 할 사적인 영역이 있음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역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중정을 볼 경우 내부화된 외부 중정은 주변의 환경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주거의 사성(私性)을 더욱 강화한다.

이와 같이 엠-주택에 적용된 반투명 유리와 중정은 주거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사이에 놓인 경계로서 거주자의 사성(私性)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물리적이고 이분법적인 분리를 통한 사생활의 보호가 아니라 유연한 경계, 곧 관찰자가 공적영역에서 사적영역을,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을 상호 축각적으로 인식케 함으로써 사성(私性)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소통의 경계공간¹¹⁾

유연한 경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지마는 경계를 물리적인 단절이나 이분법적인 분리가 아니라 실과 실, 공간과 공간 등 서로 다른 영역간의 의미들을 관찰자가 인식할 수 있는 지점으로 다룬다. 곧 경계는 서로 다른 영역간의 의미들이 서로 교환되는 소통의 지점이 된다.

일본 지바현의 주택가에 위치한 와이-주택(Y-House)의 식당은 독립적이면서 부속적인, 공적이면서 사적인 영역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식당의 이중적인 영역성은 식당을 둘러싼 반투명 유리의 간막이로 인해 형성된다.

엠-주택의 중정과 같이 식당을 둘러싼 반투명유리는 관찰자의 시선을 일차적으로 점유함과 동시에 뒤에 있는 대상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을,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식당을 둘러싼 반투명유리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더욱 강화된다. 2층 주출입구에 면해 있는 넓은 거실에서 식당을 바라 볼 때, 반투명유리 간막이가 없는 경우 주방과 식당 그리고 거실은 하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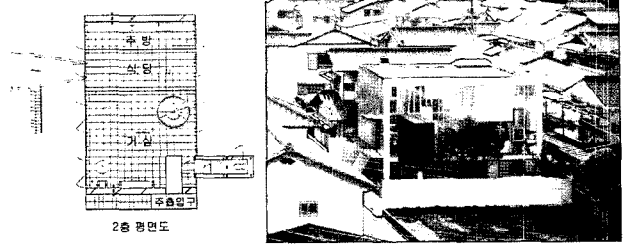


그림 11. 와이주택, 1993-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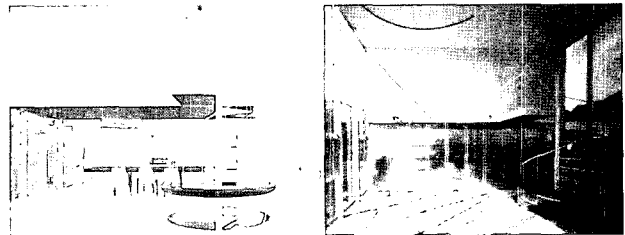


그림 12. 와이주택, 식당의 가변 반투명유리 간막이

공간이 되며, 내방객에게도 열려 있는 공적인 공간이 된다. 주방과 식당 사이에만 반투명유리 간막이가 있는 경우 주방은 열려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 제외되며 반-공적이거나 반-사적인 공간이 된다. 반투명유리 간막이가 식당과 거실 사이에 있는 경우는 식당과 거실 모두 공적인 영역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현상은 반투명유리로 인해 관찰자가 유리 너머를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그림 11, 12>.

식당의 양쪽 면을 반투명유리 간막이로 닫을 경우, 주방은 거실에서 단절되어 사적인 영역이 되고, 식당은 중간적인 영역성을 갖게 된다. 식당이 가진 중간적인 영역성도 거실의 시선을 통할 때 주로 나타나며, 그 반대로 식당에서 거실이나 주방을 볼 때는 오히려 사적인 영역성이 더 강조된다. 이것은 식당 양면의 반투명유리 간막이와 나머지 양면으로 열려 있는 주위의 풍경 때문에 나타난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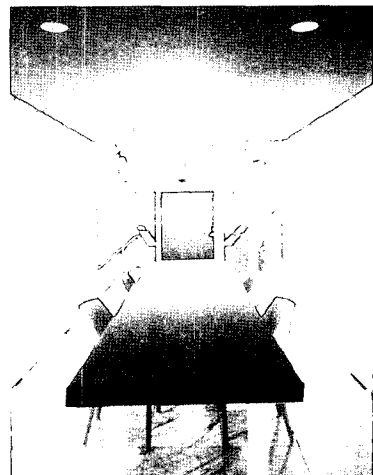


그림 13. 와이주택 식당

11) 최정석, 건축표면이 형성하는 장소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 pp.48-60, 김광현 외, '현대주거에 나타나는 사성과 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0. 11, 김현아 외, '단위와 커뮤니티의 해석을 통한 현대 주거공간의 비정주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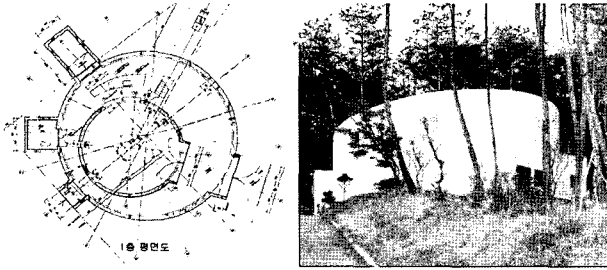


그림 14. 숲속의 별장, 1992-1994

이와 같이 식당은 공적, 반-공적, 반-사적, 사적인 영역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들이 서로 교환되는 지점이 된다. 거실, 식당, 주방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은 가변적인 반투명유리 간막이를 지나면서 다양한 성격의 공간 인식으로 바뀐다. 이러한 점에서 식당과 그 경계는 영역간의 의미들이 상호 교환되고 환원, 전이되는 경계, 곧 소통의 경계공간으로 볼 수 있다.

두 겹의 원통형 벽면이 사용된 숲속의 별장(Villa in the Forest)은 와이-주택과는 다르게 고정되고 두꺼운 벽에 의해 상호 소통하는 경계공간이 나타난다<그림 14>.

평면에서 내부 원통형 공간은 내밀하고 고립된 사적 공간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지마는 사적인 공간으로 적합한 내부 원통형 공간을 건축주의 스튜디오와 전시실로 구성함으로써 일반적인 기능과 공간배치를 전도시켰다. 더욱이 내부 원통형 공간 바깥에 주방, 식당, 거실, 침실 등이 배치됨으로써 사적인 기능의 공간들은 내부성이 아닌 외부성을 갖게 되었다. 기능과 공간배치의 전도에 의해 공적인 영역은 사성(私性)을 가지게 되고, 사적인 영역은 공성(公性)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평면상의 공간배치에 의해 형성된 사성(私性)과 공성(公性)의 관계는 동선과 접근성에 의해 다시 한번 전도된다. 외부에서 별장으로 진입한 내방객은 입구에서 바로 내부 원통형 공간인 스튜디오로 인도된다. 스튜디오는 평면상에서는 가장 내밀한 공간이지만 진입동선이나 접근성에서는 가장 공적인 공간이 된다. 오히려 식당이나 거실로 가기 위해서는 외부와 내부 원통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해 길게 돌아가야 한다. 이로 인해 식당과 거실은 사성(私性)을 회복할 수 있다. 곧 공간배치에 의한 사성(私性)과 공성(公性)은 관찰자의 경험을 통해 전도된다.

이러한 전도에도 불구하고 내부 원통형 공간에 들어선 내방객은 여전히 사적인 영역에 자신이 있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형성된 경계와 작은 원통형 공간이 주는 내밀감, 그리고 외부와 직접 면하지 않은 개구부들 때문이다. 그러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유연한 경계로 인식하면서부터 관찰자는 스튜디오를 공적인 영역으로 재인식한다. 세지마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가진 물리적 경계를 유연한 경계로 바꾸기 위해 내부 원통형 상부를 반투명 유리로 덮어 외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동일한 방향의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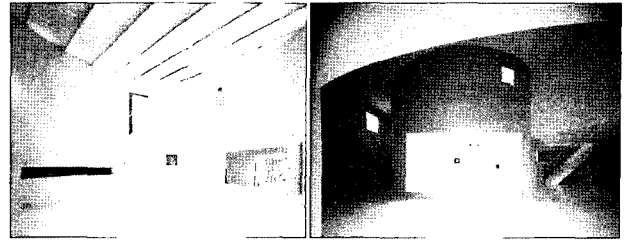


그림 15. 숲속의 별장, 내부 원통형 공간

원통형 벽과 외부 원통형 벽을 거대한·스크린처럼 뚫어냄으로서 외부의 자연환경을 간접적으로 내부로 흡수하도록 만들었다<그림 15>. 이로 인해 내부 원통형 공간은 벽에 의한 사적인 영역성과 동시에 공적인 영역성을 갖게 된다.

숲속의 별장에서 관찰자의 인식은 한 공간에 머무르면서도 서로 다른 영역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전도되고 교환된다¹²⁾. 곧 원통형 벽으로 형성된 경계는 영역간의 의미들이 상호 교환, 소통하는 경계공간이 된다.

4. 불확정적¹³⁾ 경계공간

동경 중심부의 협소한 대지에 위치한 작은 집(Small House)의 외부 입면은 앞서 언급한 장 누벨의 카르티에 빌딩과 시게루 반의 커튼-월 주택 입면에 나타난 불확정적 경계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그림 16>. 세지마가 주택에 불확정적 경계를 적용한 것은 협소한 대지에 건축주가 요구한 프로그램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건축주는 테라스, 넓은 거실 겸 주방, 부부와 아이의 침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예비실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조망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달라고 세지마에게 요구하였다¹⁴⁾. 세지마는 협소한 대지에 조망과 함께 여러 기능의 공간을 충족시켜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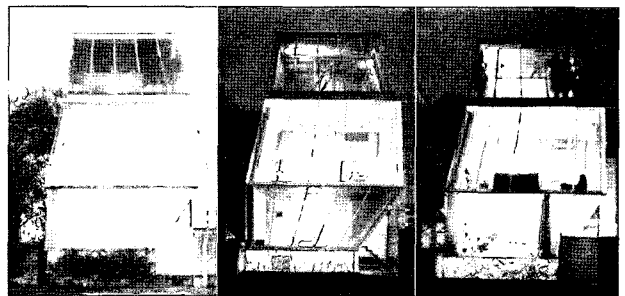


그림 16. 작은 집, 1999-2000, 입면의 변화

12) “공간을 정의하는 구성요소들 사이의 일반적인 조건들이 변함으로써 관찰자는 계속해서 바뀌는 지각상태에 놓인다. 이것은 일종의 지각적 교란(perceptive disturbance)이다”, Chistina Diaz Moreno 외, ‘Ocean of Air’, El Croquis 121/122, SANAA Kazuyo Sejima+Ryue Nishizawa, 2004, p.37

13) El Croquis 121/122, SANAA Kazuyo Sejima+Ryue Nishizawa, 2004, pp. 9-25, 장은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2, pp.17-35,

14) El Croquis 77[1]+99, 앞의 책, p.158

좁은 대지에서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세지마는 인접대지와 사선제한, 주차 등 법규적인 제한사항으로부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먼저 파악하였다. 그 결과 주택은 사선을 가진 조형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 규모 안에서 세지마는 건축주가 요구한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일반적인 공간의 기능적 배치와는 다른 것이었다.

세지마는 건축주가 요구한 면적과 조망을 위해 거실겸 주방을 2층에 배치하였다. 여기에서 한 평의 면적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화장실은 분리시켜 3층에 배치하고, 그 앞에 외부 테라스를 조성하였다. 사생활의 보호가 요구되는 부부침실은 반지하에 배치하고 아이의 놀이방과 예비실은 통합하여 1층에 배치하였다. 세지마는 주거의 일반적인 구성방법이 아닌 건축주가 요구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주거의 각 요소를 분해하고 재설정하였다.

이러한 구성으로부터 건축주가 요구한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의 입면에는 많은 유리가 사용되었다. 건축주가 외부로 향한 조망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용된 유리에 의한 사적 영역의 공개는 불가피했다. 그러나 세지마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내부의 사성(私性)을 보호하기 위해 시계루 반의 커튼-월 주택과 같은 커튼을 도입함으로써 유리에 의한 명확한 경계를 지우고자 하였다. 그리고 내부 계단실을 수평줄무늬가 있는 반투명 유리로 구성함으로써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의 시선을 점유하도록 그림 3층 화장실과 테라스 하였다. 또한 3층의 화장실은 전면 유리로 구성하여 외부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는 대신에 화장실과 면한 테라스는 와이어 메쉬로 구성하였다<그림 17>. 이로 인해 와이어 메쉬는 외부의 경계가 되면서 외부의 시선들을 점유하지만 내부에서의 경계는 투명한 유리가 되며 와이어 메쉬는 조망을 위한 창이 된다. 곧 3층 입면의 와이어 메쉬와 투명 유리는 입면의 확정된 경계의 감각을 유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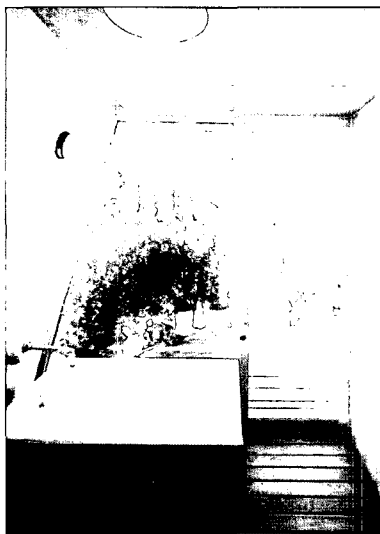


그림 17. 3층 화장실과 테라스

입면과 내부에 사용된 이러한 장치들은 장 누벨의 카르티에 빌딩에 사용된 이중 외피와 유사한 효과를 생산한다. 투명한 입면 유리와 반투명한 계단실은 서로 중첩되면서 그 사이의 공간은 지워진 하나의 경계가 된다. 만약 계단실이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졌을 경우 콘크리트가 가진 물리적이고 명확한 경계 때문에 계단실과 입면 유리 사이의 공간과 거리는 외부의 시선에 그대로 노출 될 것이다.

작은 집에서 입면 유리와 커튼, 반투명 계단실, 와이어 메쉬 등은 관찰자로 하여금 설정된 경계를 지우고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경계 인식을 유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지마는 확정적이고 물리적인 경계로부터 경계를 유보할 수 있는 인식을 관찰자가 갖게 함으로써 경계를 불확정적인 상태로 설정한다. 이것은 현대의 주거가 담아야 하는 현대인의 일상과 요구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현대인의 삶을 어떻게 주거에 적용할 것인가, 곧 관습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을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계에 대한 재설정은 세지마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이었으며, 그 해법 중의 하나로 불확정적 경계공간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IV. 결 론

현대사회가 가진 일상성은 물리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던 근대의 방식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변화와 일시성, 다원론의 현대사회에서 주거의 물리적, 이분법적 경계들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세지마가 보여준 주거 건축들은 기존의 주거 구성방법, 예를 들면 기능이나 동선에 따른 구성방법 등에서 벗어나고 있다. 경계공간은 이러한 새로운 주거건축에 적용되어 나타났다.

세지마의 주거건축에 나타난 경계공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주거의 입면과 내부의 반투명 중첩 등으로 나타난 ‘유연한 경계공간’은 사생활의 노출을 피할 수 없는 현대 주거에서 사성(私性)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로, 가변 반투명유리 간막이와 두 겹의 공간으로 나타난 ‘소통의 경계공간’은 주거의 관습적이고 이분법적인 공간 분리를 벗어나 내부와 외부, 사성(私性)과 공성(公性) 등 영역간의 의미들이 상호 교환,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였다. 셋째로, 이중외피, 커튼, 와이어 메쉬 등을 이용한 ‘불확정적 경계공간’은 다양한 현대 주거의 프로그램과 현대인의 일상을 수용하는 역할을 하였다.

세지마의 주거건축에 나타난 경계공간은 ‘상호 소통의 관계’, ‘현대의 프로그램과 일상성’과 같은 현대성을 축적함과 동시에 현대주거건축에서 요구하는 ‘사성(私性)의 강화’를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의 일상 속에 놓여있는 현대인의 주거건축에 필요한 요소들이며, 우리나라의 현대주거건축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세지마의 주거건축이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여 앞에서

언급한 ‘유연한’, ‘소통의’, ‘불확정적’ 경계들이 하나의 주거건축에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지마의 주거건축에 나타난 경계공간들은 현대주거건축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것은 건축가 세지마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향후 현대주거건축의 연구과제로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김광현(2000. 7), ‘건축과 시선’, 이상건축.
2. 김광현 외(2000. 11), ‘현대주거에 나타나는 사성과 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 김현아 외(2005. 1), ‘단위와 커뮤니티의 해석을 통한 현대 주거공간의 비정주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4. 김형준(2004), 19세기 근대건축시설의 구축, 서울대 박사논문, (그림 1).
5. 배우영(2004),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나는 경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6. 장은영(2002),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7. 최정석(2005), 건축표면이 형성하는 장소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8. CHORA(2001), Urban Flotsam, 010 Publisher, (그림 2).
9. Benjamin, Walter(1999), The Arcades Project,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0. Bell, Eugenia, Shigeru Ban(2001),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그림 7).
11. Tomoko Sakamoto(Editor)(2003), The Yokohama Project, Actar, (그림 3).
12. El Croquis 77[1]+99, Kazuyo Sejima+Ryue Nishizawa, (2000) (그림 6,8~15).
13. El Croquis 121/122, SANAA Kazuyo Sejima+Ryue Nishizawa, (2004) (그림 16,17).
14. El Croquis 6566, Jean Nouvel, (1998) (그림 4)
15. El Croquis 60+84, Herzog & de Meuron, (2000) (그림 5)

(接受: 2005. 8. 8)